

의복 동조 및 비동조의 관련 변인 연구

박 혜 선 · 이 은 영*

배재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Influential Variables on Clothing Conformity and Nonconformity

Hye Sun Park · Eun Young Rh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ai Chai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2. 2. 1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variables influential on Normative Clothing Conformity, Identificational Clothing Conformity, Clothing Anticonformity, and Clothing Independence. Four clothing-related variables (importance of clothing, confidence of clothing, recognition of clothing norm, and perceived risk of clothing), two personality variables (conformistic character and self-esteem) and six demographic variable (sex, age, years of education, job, income, and length of career)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sponses of 714 fulltime employeeed subjects from four different cities were analyzed. Business wear was used as the situational stimulus.

As the results, career people conformed more identificationally when they felt clothing was important, had conformistic character, had low self-esteem, and felt psychological risk of clothing. They conformed more normatively when they felt social risk of clothing, recognized the clothing norms of the firm, had conformistic character, and recognized the clothing norms of the society. They anticonformed more when they felt clothing was important, were female, did not have conformistic character, had confidence of clothing, and felt less performance risk of clothing. And they acted more independently in clothing behavior when they had confidence of clothing, did not have conformistic character, felt performance risk of clothing, and felt less social risk of clothing.

I. 序 論

의류학분야에서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정립된 동조 이론을 도입하여 인간의 복식행동(clothing behavior)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여, 의복동조를 인간의 기본 욕구

인 소속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이며, 유행현상의 필수조건으로 설명하여 왔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여 인간은 의복을 착용할 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본인의 선행연구¹⁾에서 의복동조는 동조의 동기에 따라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규범적 의복동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의복

비동조는 의복반동조와 의복독립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패션전파과정에서 패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규범화되기까지는 동일시적 의복동조가 전파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의복비동조 행동에서 의복독립보다는 의복반동조가 패션전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추론되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¹⁾에서 밝혀진 의복동조의 개념적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복동조의 유형인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규범적 의복동조, 의복비동조의 유형인 의복반동조와 의복독립의 관련 변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理論的背景

의복동조와 비동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변인들을 의복관련변인, 성격변인, 인구통계적 변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존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衣服關聯變因

의복관련변인으로는 선행연구들에서 의복동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타나난 의복중요도, 의복자신감, 및 의복규범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복위험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衣服重要度

김미실²⁾은 의복 중요도를 “의복을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남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복동조와 의복중요도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abolt와 Drake³⁾의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장복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직장 내의 사람들로부터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광희⁴⁾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복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의복의 중요도와 의복동조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거나 의복이 사회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대인지각의 단서로서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이 높으면 사회에 적응하고 수용되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할 것이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복동조가 높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2) 衣服自信感

Horn과 Gurel⁵⁾은 “의복의 올바른 형태에 대한 확신이 적을 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보다 의존하기 쉽다”고 하였으며, 박광희⁴⁾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은 사람은 의복동조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bolt와 Drake³⁾의 직장 여성복에 대한 연구에서는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직장밖의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복식행동에 있어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衣服規範認識

Goldberg⁶⁾의 연구에서 어느 한계까지는 집단의 규범에 노출된 회수가 많아질수록 동조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muker와 Creekmor⁷⁾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복 규범의 인식은 의복동조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동료들에게 수용되는 정도와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abolt와 Dreak³⁾의 연구에서는 직장여성의 경우에도 의복규범에 대한 인식이 회사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복규범을 많이 인식하는 사람들은 의복동조, 특히 규범적 의복동조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衣服危險認知

Bauer⁸⁾는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확신있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연제⁹⁾는 이러한 위험이 커질수록 인적 정보원의 역할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김현민¹⁰⁾, 김종림¹¹⁾ 등의 연구에서도 제품에 대한 인지된 위험이 클수록 소비자는 준거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ox¹²⁾는 색상, 맵시, 크기 등이 문제시되지 않은 품목은 위험의 인지가 낮고, 반면 스타일이나 맵시, 개인적 요구 등이 중요시되는 품목은 위험의 인지가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Winakor, Canton, Wolins¹³⁾는 유행상품은 비유행상품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하였는데, 의복은 유행성을 갖고 있는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만큼 유행에 민감한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의복은 위험인지도가 큰 상품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옥선경¹⁴⁾

은 의복구매시 인지되는 위험의 유형을 경제적 위험, 성과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의복위험인지와 의복동조의 관련을 연구한 논문은 없었으나, 의복에 대한 위험인지도가 클수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보추구가 많아지며, 따라서 의복동조도 증가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性格變因

성격변인으로는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동조나 의복동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존심과 동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自尊心

Baron과 Byran¹⁵⁾은 동조와 관련된 성격적인 특성들 중의 하나가 자존심이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지를 원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하였다. Stang¹⁶⁾의 연구에서는 자존심은 동조와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umphrey, Klassen, Creekmor¹⁷⁾의 연구에서는 의복동조와 자존심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나, 독립적이며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한, 즉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의복동조, 특히 동일시적 의복동조를 적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同調性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¹⁸⁾는 동조성을 성격특성으로 간주하고, "순응성, 대응성, 준법성, 도덕성, 동화성, 인습성, 규준성, 복종성 등을 포함하며, 조화와 원만을 즐기고 전통에서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고 따르는 성격경향"이라 정의하고, 동조성을 측정하는 표준화성격 집단검사지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성격으로서의 동조성과 복식행동에서 나타나는 의복동조의 관련에 대한 연구는 Aiken¹⁹⁾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동조성 성격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격특성으로서의 동조성이 강한 사람은 복식행동에 있어서도 동조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人口統計的 變因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수입, 학

력, 근무기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性別

Williams와 Eicher²⁰⁾, Hambleton, Roach, Ehle²¹⁾, 강혜원²²⁾ 등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이 비해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muker와 Creekmor⁷⁾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일정한 형식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vans²³⁾, 김병미²⁴⁾ 등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타인과 같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여학생은 다르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 동조성이 남학생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강혜원²⁵⁾은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여성들에 비해 의복 이외의 다른 방면에 관심이 더 많고, 따라서 의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의 의복동조 연구는 규범적 동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규범적 의복동조는 남성이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되나, 여성들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동일시적 의복동조는 남성들보다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령

강혜원²⁵⁾은 "의복동조는 연령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달리하며, 학령기부터 점차 동조에 대한 필요가 높아져 청소년기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한다"고 하였다. Rabolt와 Drake⁹⁾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의복선택에 있어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소연과 조필교²⁶⁾의 대구시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0대 여성들이 30대 여성들보다 의복동조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ichard와 Hawthorne²⁷⁾의 연구에서는 대학교 1학년생과 4학년생 간에 의복동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영선²⁸⁾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의복동조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미실²⁾의 연구에서는 남자고등학생이 남자중학생보다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나, 연령이 많을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므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정보를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따라서 연령이 많을수록 의복동조, 특히 동일시적 의복동조는 적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職業

Littrell²⁹⁾은 직업에 따라 의복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단서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Form과 Stone³⁰⁾의 연구에서는 사무직종사자들은 의복을 타인에 게 호의적인 인상을 줄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여 더 많은 시간과 금전을 사용하였고, 기능직종사자들은 의복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길순³¹⁾은 여성들의 직업을 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의 사무직, 관청에서 종사하는 공무원, 간호원, 은행원, 상가 또는 백화점에서 종사하는 판매원, 기능직에 종사하는 여성,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등으로 분류하여 의복동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의복동조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 가장 적게 하는 집단은 은행원이었고, 육체노동자가 사무직종사자들보다 의복동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몇몇 연구에서 직업에 따라 의복동조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라 의복규범의 정도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복동조, 특히 규범적 의복동조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收入

수입과 동조의 관련을 연구한 Hunt와 그의 동료들³²⁾의 연구에서는 수입이 높은 집단이 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ambleron, Roach, Ehle³¹⁾의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의 의복동조는 가정의 수입과 직업으로 측정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rake와 Rabolt³⁾의 연구에서는 직장여성들의 직장 밖의 사람으로부터 받는 정보적 영향이 수입이 \$20000-\$30000까지는 증가하다 그 이상의 수입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나, 수입이 많아지면 의복에 많은 지출이 가능하며 관심도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의복에 대한 정보추구가 많아져 동일시적 의복동조를 많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5) 學歷

Rabolt와 Drake³⁾의 연구에서는 의복동조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존심과 의복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므로, 의복동조, 특히 동일시적 의복 동조를 적게 할 것이다.

6) 勤務期間

Rabolt와 Drake³⁾의 연구에서는 직장내의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되는 의복의 규범적 영향적과 정보적 영향이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길어지면 직장내에서의 지위도 높아져 규범에서의 탈피가 용이하고, 의복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져 의복동조를 적게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研究 問題

의복관련변인으로 의복중요도, 의복자신감, 의복규범인식, 및 의복위험인지, 성격변인으로 자존심, 및 동조성,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수입 및 근무 기간이 의복동조 및 비동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동일시적 의복동조, 규범적 의복동조, 의복반동조 및 의복독립의 관련변인을 밝힌다.

IV. 研究 方法

1. 用語定義

본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들의 작업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시적 의복동조 : 동일시나 적절한 복식행동을 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의 의복을 모방하거나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따르는 것.

2) 규범적 의복동조 : 인정을 받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의 의복 규범을 따르는 것.

3) 의복반동조 : 준거집단이 착용하는 의복과는 다른 의복을 착용하는 것.

4) 의복독립 : 준거집단이 착용하는 의복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

5) 의복중요도 : 사회생활에서나 사람을 평가할 때 의복을 중요시하는 정도.

6) 의복자신감 : 자신이 의복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고 의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7) 의복규범인식 : 의복규범, 즉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서 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의복착용 방식을 인식하는 정도.

(1) 직장의 의복규범인식 :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의복규범을 인식하는 정도.

(2) 사회의 의복규범인식 : 전반적인 사회의 의복규범을 인식하는 정도.

8) 의복구입시 위험인지 : 의복구입시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

(1) 경제적 위험인지 : 투자된 액수에 비하여 제품의 가치가 적을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

(2) 기능적 위험인지 : 제품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

(3) 심리적 위험인지 : 자신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아 심리적 불만족감을 줄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

(4) 사회적 위험인지 :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

2. 測定道具 및 資料蒐集

실증적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 연구대상과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다.

1) 測定道具

본 논문의 실증적 연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복식행동에 대한 태도와 성향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복동조와 의복반동조의 측정도구는 강혜원²²⁾, 박광희⁴⁾, 정미실²⁾, Moschis³³⁾ 및 Selker³⁴⁾의 문항과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들로 선행연구¹⁾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의복관련변인, 성격변인, 및 인구통계적 변인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의복관련변인으로 의복중요도와 의복자신감은 4 문항씩을 측정하였으며, 의복규범인식은 직장의 의복규범인식과 사회의 의복규범인식을 각각 2 문항씩 측정하였다. 그리고 의복위험인지는 경제적 위험인지, 기능적 위험인지, 심리적 위험인지, 및 사회적 위험인지를 각각 2 문항씩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선행연구들^{2~4,14)}에서 사용된 문항과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평정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성격변인으로는 자존심과 동조성을 측정하였다. 자존심은 정원식³⁵⁾의 자아개념검사 중 자아동일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동조성은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¹⁸⁾가 개발한 동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수입, 근무기간 및 거주지 등을 측정하였다. 이 중 직업은 김영모³⁶⁾의 분류를 근거로 하여 전문직, 경영·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및 생산직으로 분류하였다.

척도 타당도는 의류학 분야의 교수와 강사들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고, 신뢰도는 측정변인들의 전체문항 점수와 각 문항점수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 모든 문항이 0.62~0.88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研究對象과 資料蒐集

연구모집단은 많은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으며 의복의 중요한 소비층인 남·녀 직장인으로 하였다. 직장에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육체노동자는 대부분 유니폼을 착용하였으므로 본 연구모집단에서 제외시켰다. 연구대상의복은 직장에서 착용하는 의복으로 제한하였다.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1990년 3월 26일~4월 30일에 걸쳐 대학생들이 직장인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864부가 회수되었으나 잘못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모두 71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은 남성이 51.9%, 여성이 48.1%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대 41.2%, 30대 30.4%, 40대 17.7%, 그리고 50대가 10.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거주지는 서울 26.0%, 부산 23.7%, 대전 22.1%, 광주 9.9%, 그리고 나머지 18.2%는 그 외의 여러 도시의 거주자였다.

V. 結果 및 論議

의복 동조 및 비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기 위하여 의복관련변인으로 의복중요도, 의복자신감, 의복규범인식(직장의 의복규범인식, 사회의 의복규범인식), 및 의복위험인지(경제적 위험인지, 기능적 위험인지, 심리적 위험인지, 사회적 위험인지)와 성격변인으로 자존심과 동조성, 그리고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수입 및 근무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들은 선행연구¹⁾에서 실시한 요인분석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인들은 원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학력은 교육받은 연수를 계산하였고 성별과 직업은 모조변인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다. 단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한 결과, 동일시적 의복동조, 규범적 의복동조, 의복반동조 및 의복독립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회귀식에 포함된 순서대로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첫째, 동일시적 의복동조는 의복중요도($\beta = .307$), 동조성($\beta = .173$), 자존심($\beta = -.137$), 심리적 위험인지($\beta = .138$) 등의 4 변인에 의해 전체변

〈표 1〉 의복 동조 및 비동조의 예측변인을 밝히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R square	F값	최종 회귀식	
				β	T값
동일시적 의복동조	의복중요도	.124	92.2	.307	8.06***
	동조성	.155	59.8	.173	4.79***
	자존심	.173	45.4	-.137	-3.78***
	위험인지(심리적)	.183	36.4	.138	3.45***
규범적 의복동조	위험인지(사회적)	.114	84.5	.233	6.21***
	의복규범인식(직장)	.166	65.0	.213	6.01***
	동조성	.189	50.9	.158	4.34***
	의복규범인식(사회)	.204	41.8	.113	3.13**
의복 반동조	의복중요도	.194	156.9	.276	6.31***
	성별 ^a	.233	99.4	.202	5.38***
	동조성	.258	75.5	-.144	-4.21***
	의복자신감	.274	61.4	.189	4.48***
	위험인지(기능적)	.2282	51.1	-.105	-2.91**
의복독립	의복자신감	.038	25.6	.197	5.19***
	동조성	.057	19.6	-.108	-2.74**
	위험인지(기능적)	.063	14.6	.105	2.72**
	위험인지(사회적)	.71	12.5	-.107	-2.65**

p≤0.01 *p≤0.001 수준.

종속변인은 요인점수, 독립변인은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a 모조변수로 처리되었으며, 남성은 1, 여성은 2로 표시하였다.

량의 18.3%가 설명되며, 자존심은 부적인 상관인, 나머지 3 변인은 정적인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시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조성이 강하며, 의복구매시 심리적 위험을 많이 인지하며, 자존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의복중요도와 동조성에 의해 전체변량의 15.5%가 설명되어 설명력이 큰 변인들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규범적 의복동조는 사회적 위험인지($\beta=.233$), 직장의 의복규범인식($\beta=.213$), 동조성($\beta=.158$), 사회의 의복규범인식($\beta=.113$) 등의 4 변인에 의해 전체변량의 20.4%가 설명되며, 4 변인 모두 정적인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범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의복구매시 사회적 위험을 많이 인지하며, 직장과 사회의 의복규범을 많이 인식하고, 동조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회적 위험인지와 직장의 의복규범인식에 의해 전체변량의 16.6%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큰 변인들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의복반동조는 의복중요도($\beta=.276$), 성별($\beta=.202$), 동조성($\beta=-.144$), 의복자신감($\beta=.189$), 기능적 위험인지($\beta=-.105$) 등의 5 변인에 의해 전체변량의 28.2%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조성과 기능적 위험인지는 부적인 상관인, 나머지 3 변인은 정적인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반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조성은 약하며,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고, 의복구매시 기능적 위험을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복반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의복중요도와 성별에 의해 전체변량의 23.3%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큰 변인들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의복독립은 의복자신감($\beta=.197$), 동조성($\beta=-.108$), 기능적 위험인지($\beta=.105$), 사회적 위험인지($\beta=.107$) 등의 4 변인에 의해 전체변량의 7.1%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조성과 사회적 위험인지는 부적인 상관인, 의복자신감과 기능적 위험인지는 정적인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적인 복식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의복자신감이 강하고, 동조성은 약하며, 의복구매시 기능적 위험을 많이 인지하고, 의복구매시 사회적 위험은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에 의하면 의복중요도는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의복반동조에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¹¹⁾의 결과에서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의복반동조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의복반동조를 동시에 많이 하나 동조와 반동조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조성은 두 유형의 의복동조와는 정적 상관인, 의복반동조, 의복독립과는 부적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동조와 비동조를 구분하는 좋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의복반동조를 예측하는 회귀식에 동조성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동일시적 의복동조에는 정적 상관인, 의복반동조에는 부적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조성이 큰 사람은 동일시적 의복동조의 경향을,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조성이 적은 사람은 의복 반동조의 경향을 더 강하게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자신감은 의복반동조, 의복독립 등과 정적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시도하거나, 혹은 독립적인 복식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중요도는 의복반동조의 회귀식에만 포함되어 반동조나 독립적인 복식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복에 자신감이 강하나 독립적인 복식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반동조적인 복식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션변화의 촉진자들은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므로 의복독립보다는 의복반동조가 패션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과 사회의 의복규범인식은 둘 다 규범적 의복동조의 회귀식에 포함되어 의복에 대한 규범을 많이 인식할수록 규범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의 의복규범인식이 사회의 의복규범인식보다 설명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의복이 직장복이었으

며, 또한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규범을 사회전체의 규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인지는 규범적 의복동조와는 정적 상관인, 의복독립과는 부적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험을 많이 인지하는 사람이 규범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범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패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규범화되었을 때 착용하거나 사회적 위험이 적은 클래식(classic)을 많이 착용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적인 복식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복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적으며, 자신의 판단에 의해 개성을 나타내는 의복을 착용하리라 생각된다.

기능적 위험인지는 의복독립과는 정적, 의복반동조와는 부적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복의 기능적인 측면을 중시하나 반동조적인 복식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스타일의 의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인 위험인지는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정적인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구매시 심리적 위험을 많이 인지할수록 동일시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며, 또한 자존심은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부적인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동일시적 의복동조를 많이 함으로써 의복을 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의복반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복이 남성복보다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며, 여성들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남들과 다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성복의 유행변화가 남성복보다 빠르다고 생각된다.

VI. 結論 및 提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두 유형의 의복동조와 관련된 변인들 뿐 아니라 두 유형의 의복비동조와 관련된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¹¹⁾에서 의복동조의 유형을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규범적 의복동조로 구분하고, 의복비동조의 유형을 의복반동조와 의복독립으로 구분한 개념적 구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의복반동조를 동시에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행연구에서¹¹⁾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은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의복반동조의 동기가 모두 높으나 대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조성이 큰 사람은 동일시적 의복동조를,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조성이 적은 사람은 의복반동조의 경향을 더 강하게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의복반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유행을 앞서 나가거나 초기단계에 따를 것이며, 규범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유행이 대중에게 수용되는 단계에서 따르거나 클래식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그리고 독립적인 복식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유행에 상관없이 의복을 착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에서 의복관련변인으로 의복중요도, 의복자신감, 의복규범인식 및 의복위험인지, 성격변인으로 자존심과 동조성,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성별과 연령 등이 의복동조 및 비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밝혀졌으나, 동일시적 의복동조는 전체변량의 18.3%, 규범적 의복동조는 전체변량의 20.4%, 의복반동조는 전체변량의 28.2%, 의복독립은 전체변량의 7.1만 설명되었으므로 나머지 변량을 밝힐 수 있는 연구, 특히 의복독립의 예측변인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의복 동조나 비동조의 행동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기 아니라 질문지를 통하여 태도와 성향을 측정하였으므로 실제적인 복식행동에서 나타나는 동조나 비동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직장인들의 직장복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다른 착용상황의 의복에까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으나 엄격한 의미의 체계적 표본추출방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실제 복식행동에서 나타나는 동조와 비동조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소년이나 대학생, 혹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른 상황에서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대상이나 착용상황에 따른 의복 동조 및 비동조의 차이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박혜선, 의복 동조의 개념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289-296, (1991)
- 2) 정미실,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형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3) Rabolt, N.J. and Drake, M.F., Reference person influence on career women's dres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2), 11-19, (1984-1985)
- 4) 박광희,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5) Horn, M.J. and Gurel, L.M., *The second skin*, Boston Mifflin, (1981)
- 6) Goldberg, S.C., Three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nformity to social norm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325-329, (1954)
- 7) Smucker, B. and Creekmor, A.M., Adolescents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 92-97, (1972)
- 8) Bauer, R.A., Consumer behavior as risk taking. in Cox, D.F., Risk taking and information handling in consumer behavior,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 9) 김연제, 소비자행동론, 서울 : 나눔, (1987)
- 10) 김현민, 소비자행동에 대한 준거집단영향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11) 김종립, 준거집단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12) Cox, D.F., Risk handling in consumer behavior: An intensive study of two cases, in Cox D.F. Risk taking and information handling in consumer behavior, 34-81,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 13) Winakor, G., Canton B. and Wolins, L., Perceived fashion risk and self-esteem of male and fem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1), 45-36, (1980)
- 14) 옥선경, 의복 구매시 인지되는 위험 유형과 정보원 활용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15) Baron, R.A. and Byrne, D.,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7)
- 16) Stang, D.J., Conformity, ability, and self-esteem,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3, 97-103, (1972)

- 17) Humphrey, C., Kassen M. and Creekmore, M.A.,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246-250, (1971)
- 18)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실시요강 : 중학생 - 성인용, 서울 : 중앙적성 출판사, (1969)
- 19) Aiken, L.R.Jr., The relationships of dress to selected measure of personality in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1), 119-128, (1963), Sproles, G.B.,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p 150). Minneapolis: Burgess, (1979) 재인용
- 20) Williams, M.C. and Eicher, J.B., Teen-ager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58** 457-461, (1966)
- 21) Hambleton, K.B., Roach, M.E, and Ehle K., Teenage appearance: Conformity, Preferences, and self-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4**(2), 29-33, (1972)
- 22)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5, (1974)
- 23) Evans, S.E., Motivations underlying clothing selection and wear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6**(10), 733-743 (1964)
- 24) 김병미, 청소년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 234-247, (1975)
- 25)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 교문사, (1984)
- 26) 김소연, 조필교, 성인여성의 의복선택행동과 관련변인연구 -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2**(2), 159-168, (1988)
- 27) Richards, E.A. and Hawthorne, R.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3), 190-194, (1971)
- 28) 이영선, 자유 - 보수주의적 태도와 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연구 - 유행과 동조성 · 개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8**(1), 69-74, (1984)
- 29) Littrell, M.A.,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clothing: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direction. Paper Presented to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989)
- 30) Form, W.H. and Stone, G.P., The social significance of clothing in occupational life. Michigan State Unive, Agr, Expt, Sta, Bull, 247, (1955)
- 31) 박길순, 의복 행동과 직업과의 관계 연구 - 대전 지역의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0**(4), 33-44, (1982)
- 32) Hunt, R.G., Goldberg, S., Meadow, A. and Cohen, W., Some demographic factors in conformity behavior,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42**(3), 196-198, (1958)
- 33) Moschis, G.P., Social comparison and informal group influ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3**(3), 237-244, (1976)
- 34) Selker, M.L., Conformity in dress: An exploration in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Unpublished master thesi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2). in Creekmore A.M. (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pp. 87-91).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ns Station project, No. 783
- 35) 정원식, 자아개념검사, 서울 : 코리안테스팅센터, (1965)
- 36) 김영모, 한국사회계층연구, 서울 : 일조각, (1982)